

절단환자 응급처치 요령
및 수부 미세수술 관련



절단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 후 미세접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사지 절단 사고시 응급처치 요령

사지 절단사고 환자가 발생되면 사고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절단부위 출혈은 소독이 잘 된 압박붕대로 압박하여 출혈을 방지하여야 하며 절대로 혈관감자 등을 이용해 지혈해서는 안 된다. 압박을 하여도 계속 출혈이 될 경우, 절단부위 윗부분에 지혈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지절단 된 부분은 가능한 생리식염수 등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섭씨 4°C 정도로 차게 유지하여 운반하는 것이 절단된 부분 조직의 생명력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다.

절단된 부분을 차가운 얼음과 함께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올 경우, 절단부위 조직이 동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물이나 간장 등에 담구어 오는 경우는 오히려 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점 유념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단된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 소독된 가제 등으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잘 묶는다. 주위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만큼의 얼음을 넣고 절단된 부분이 얼음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같이 전문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부분절단의 경우도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손상부위를 차갑게 유지해 운반하여야 한다. 장시간의 운반을 요하는 경우는 괴사의 위험성이 높



김 주 성 원장

現 대구현대병원 병원장

약력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초빙교수, 대구경북병원회 재무이사, 대한수부외과학회 평의원,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학술이사, 아시아태평양 수부외과학회 부회장, 세계수부외과학회, 국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골절학회 정회원, 영진전문대학 겸임교수,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 전국통신기자협회 이사장, (주)텔레케어 코리아 대표이사, (주)이호스피탈코리아 대표이사, (주)엠에스엔티 대표이사

으므로 응급 조치시 충분한 얼음을 준비한 후 이동토록 한다.

잘린 부분은 물을 그대로 넣어 보관하면 목욕탕에서 살이 붓는 것처럼 변해 수술이 어려워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처부위는 먼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주는 것이 항생제 주사보다 효과적이며, 사고 후에는 절대 음식이나 물 등을 먹지 않아야 전신마취를 위한 공복시간을 맞출 수 있음도 알아둬야 한다.



■절단후 수술시간

절단수지를 차갑게 하지 않고 상온(20~25도)에 6시간 이상 시연시키면 불가역적 괴사가 일어나므로 가능하면 빨리 접합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적절히 차갑게(약 4도) 유지하면 12-30시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절단 수지를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세수술

수술순서는 먼저 뼈를 고정시키고, 신건전봉합, 굴곡건봉합, 동맥문합, 신경봉합, 정맥봉합 순으로 이뤄지며, 동맥, 신경, 정맥봉합 시에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문합을 시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의 문합이다.

■수술 후 처치

수술후 혈액용 해제 및 진통제를 사용하며 수술부위를 심장위치에 유지시키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이 때 커피, 담배, 코코아 등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수술 후 재활

수술후 1~2주부터 수지운동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손상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킨다. 의학의 발달로 수술후 완벽한 처치가 가능하고 수지의 기능 회복은 물론 미용상에도 완전한 수술 접합술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렀다.

수지절단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후 미세접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 문의 : 현대병원 053-764-2000-9, hyundae.e-hospitalkorea.co.kr >